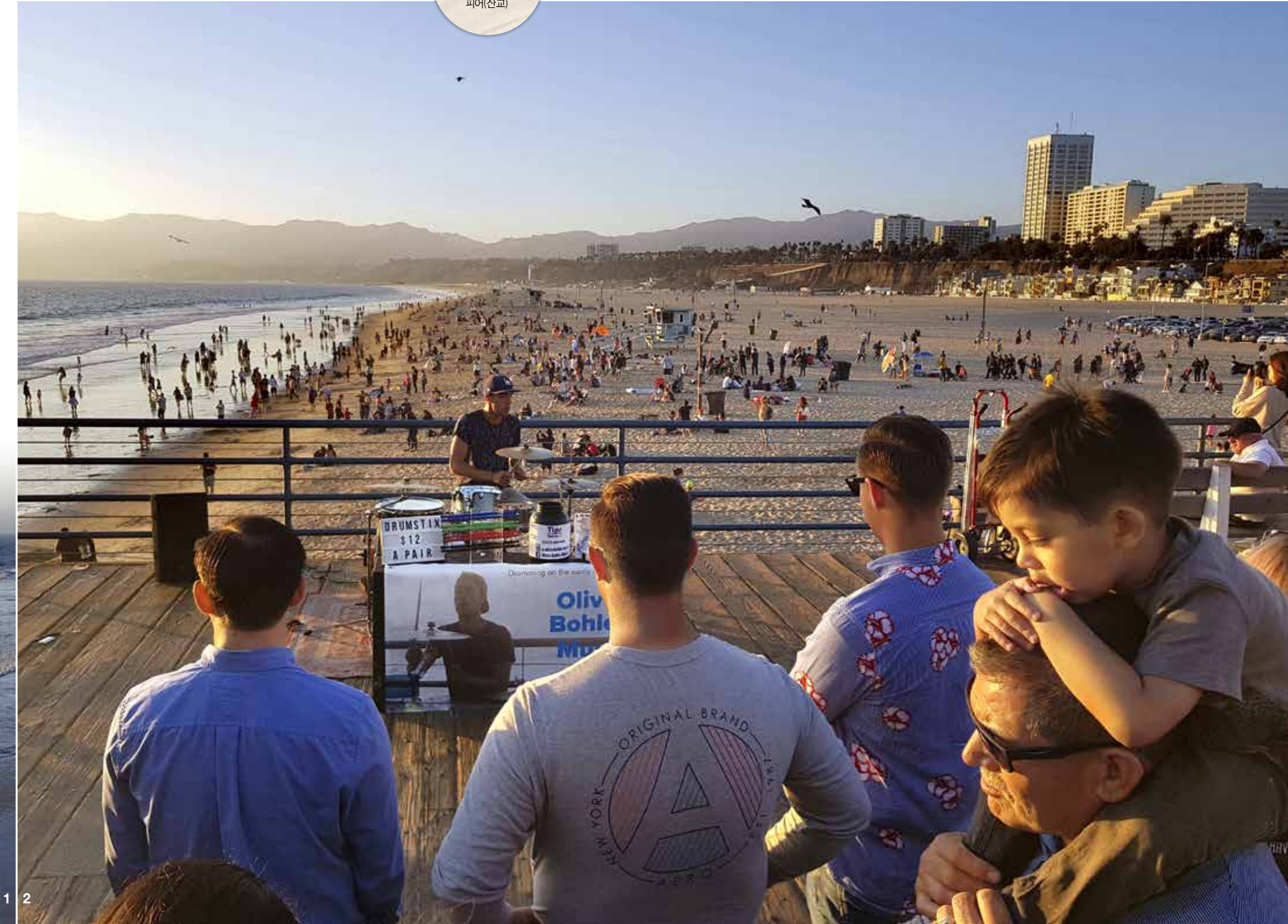


# 다양한 문화의 사람 구경 '만끽' 로스앤젤레스(LA) 산타 모니카 해변 나들이

글 · 사진 도광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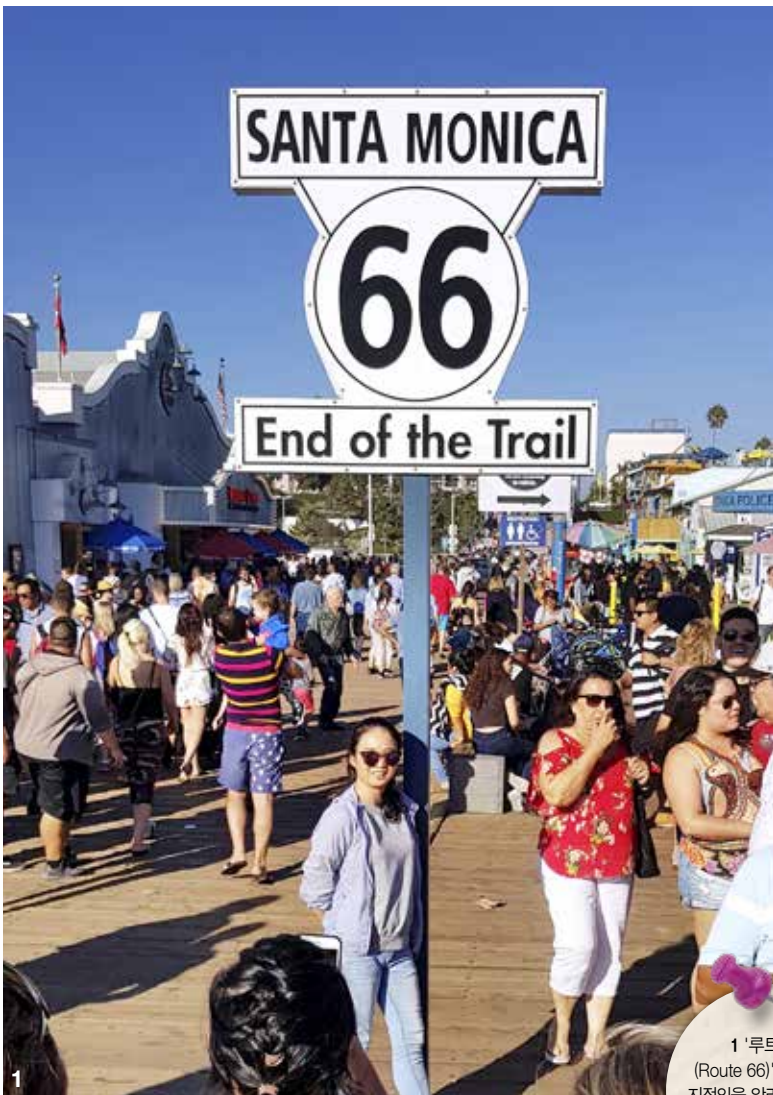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여행에서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로는 해변(비치) 관광을 꼽을 수 있다. 낯익은 이름인 롱비치는 물론이고 산타 모니카, 레돈도, 라구나, 헌팅턴, 뉴포트, 샌클레멘테 등이 모두 LA 연안을 장식하는 비치들이다. 한가한 오후나 석양 무렵, 이곳에 발을 들이면 부드러운 바람과 평화로운 정경, 다사로운 햇살과 진홍빛 노을의 장관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들 해변 중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산타 모니카(Santa Monica)라고 한다. 그러나 직접 찾아보니 자연경관이나 해변 길이, 주변 환경 등에서 특별히 뛰어난 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역사가 오래된 비치라는 점과 LA 시내, 특히 국제공항(LAX)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명성이 높아진 듯 보였다. 산타 모니카는 해변을 넘어 해변을 아우르는 도시 이름이 됐다. 이 이름은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교학자이자 '고백록'의 저자인 성(聖) 아

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이름(모니카)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마니교에 심취해 있던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 끝에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시킨 현모성인(賢母聖人)이었다. LA나 샌프란시스코 유명 해변의 중심에는 '피어'(Pier)가 있다. 피어는 바닷가나 호수에 지어 놓은 잔교(다리 모양의 구조물)를 말하는데, 어려운 용어에 헤매지 말고 실물 사진을 보면 금방 와 닿는다. 이 피어를 중심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낚시꾼들이 붐비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산타 모니카 피어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피어일 것이다. 이런 탓에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산타 모니카 해변은 피해야 할 장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스포츠든, 축제든, 관광지든 그 자체 행사나 테마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사람 구경' 아니던가? 게다가 다양한 인종과 언어의 여러 문



1, 2 산타 모니카 해변 전경  
3 산타 모니카 피어(잔교)





1 '루트 66 (Route 66)'이 끝나는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판  
2 피어 위 놀이공원인 '퍼시픽 파크' 입구

화가 뒤섞인 거리 공연이 쉬지 않고 이어지니 몇 시간 머무르며 사람들 속에 섞여볼 가치는 충분하다.

피어 입구에 서 있는 아치형의 안내 표지판을 지나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어깨를 부딪칠 정도의 인파와 마주친다. 하지만 조금 좁은 입구를 지나면 다소 여유가 있다. 오른쪽으로는 눈에 띄는 큰 건물을 볼 수 있다. 'BUBBA GUMP SHRIMP'.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그렇다. 1994년 개봉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이름이다. 주인공 검프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전우 'BUBBA'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앨라배마에서 새우잡이를 하면서 만든 회사 이름

이 'BUBBA GUMP SHRIMP Co.'다. 식당 안내판에는 "1931년부터 'OJ BENNET'S SEAFOOD GROTTO'라는 가게가 있었고, 1996년부터 'BUBBA GUMP SHRIMP' 이름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다. 식당 입구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의 포스터나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코너가 있다. 식당 옆에는 영화 속에서 검프가 버스를 기다리며 행인들과 얘기를 나누던 벤치가 있다. 그리고 책 가방, 나이키 운동화 등 영화 속 소품들을 전시해 기념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새우요리 맛은 일품까지는 아니지만 맛볼 만한 수준이다.

이 식당 맞은편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도로 표지판이 하나 서 있다. 기념촬영을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있지 않는다면 무심코 지나치기에 십상이다. '루트 66'(ROUTE 66)이 끝나는 곳이라고 적혀 있다. '마더로드'(Mother Road)로 불리는 루트 66은 시카고에서 시작해 산타 모니카에서 끝나는 약 4천km에 이르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도로다. 미시간호, 모하비 사막, 콜로라도강, 애리조나 황야를 거치는 이 도로는 미국인의 개척정신과 '캘리포니아 드림'을 상징하는 길이기도 하다.

잭 케루악의 자전적 소설인 '길 위에서', 여성의 자유를 상징하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 바비 트

롭이 작곡하고 냇 킹 콜이 부른 같은 이름의 팝송 'Route 66' 등 여러 문학작품과 영화, 음악 속에 이 도로가 녹아 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인의 절망과 현실을 그린 존 스타인벡의 걸작 '분노의 포도'에도 이 도로가 자세히 묘사돼 있다. 마더로드라는 이름도 이 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도로의 역사와 흔적을 알고 나면 평범한 표지판 아래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조금이나마 남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지판 바로 옆쪽으로 여러 상점이 보이고 그 뒤에서 기계음과 사람들의 소리가 섞인 소음이 들려온다. 피어 위에는 특이하게 놀이공원이 들어서 있다. 규모가 작고 이렇다 할 만한 놀이기구도 없지만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이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라면 지갑 열 준비를 해야 한다. 피어 끝에 서면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The

Pacific Ocean)을 볼 수 있다. 태평양은 그 이름처럼 평온하고 고요하며 아름답다. 피어 끝난간에 기댄 사람들은 저마다 바다를 바라본다. 소원을 비는 사람, 저 너머의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는 사람, 단지 바다 풍경을 즐기는 사람 등 그 부류는 다양하다. LA 여행이 선사하는 가장 큰 매력은 기후일 것이다. 가장 더운 여름철에도 그늘에만 들어서면 땀이 나지 않는다. 가장 추운 겨울에도 한낮에는 반스매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1년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지므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관광지라 할 만하다. LA에 간다면 산타 모니카 해변부터 시작해 관광지 사이 사이에 박혀 있는 몇몇 비치를 둘러보면 어떨까? 비치마다 분위기가 참 다르고 시간마다 변하는 풍경은 묘미마저 느끼게 한다. ▼

